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이혜원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현태환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강현미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박석환

이혜원

auri

수시과제

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  
방향 연구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으로는 건축기준 준수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업기간,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

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금품수수 등 비리 유착, 공정성이 의심되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자질, 지자체별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의 차이, 과도한 책임 부여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12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법제화, 1991년 5월, 「건축법」 전부 개정에 의한 「건축법」 상 정착된 이후 전반적인 운영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행정업무의 대행' 개념, 제도의 도입 취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 건축행정절차상에서의 역할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도 도입 취지 및 '행정업무의 대행' 개념을 고려한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합리적 운영과 중장기적으로는 본래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관(官)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국가 공간정보 제도 및 정책은 1950년 「지적법」에서 시작하여 현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진화되어 왔다. 이는 공간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 '도화' 라는 지도 개념에서 '공간정보의 집적'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국가는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디지털트윈 및 스마트시티 구축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밑바탕으로 국가기본도를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가기본도에 대한 제도적 개념이 여전히 축척 기반으로 되어 있어 공간정보의 집적이라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기본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및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준 축척을 1:5,000 이상의 축척으

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공간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고, 디지털 트윈 등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표준이 되는 국가기본도의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변화되어 가는 사회환경에 맞춰 국가기본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국가기본도 정보체계 구축 및 관계 공간정보DB의 연계성에 바탕을 둔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지형·지물의 표현에 머물러 있는 국가기본도를 인문·사회·경제·안전·물리적 속성이 결합된 통합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의 정책 및 민간 공간산업의 기준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태환

### ③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0년-2022년)’은 3년간 총 30조 원을 투자하여 생활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14종의 생활인프라 가운데 복수 시설을 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국고 보조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이 희망하는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3년간 선정된 530여 건의 사업 가운데 취소 사업을 제외한 490여 건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2023년 10월 현재 90여 건의 복합화시설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2년 이내 대부분의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복합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생활인프라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따른다. 생활인프라는 공공재 성격으로 별도 수익을 추구하기 어렵고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에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이 공급될 경우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한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이 복합화사업 선정 기준에 시설 입지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을 포함함으로써 운영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선정 이후 운

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아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저출산·고령화로 시설 이용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생활인프라 운영 관리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은 부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공급되어 운영을 시작한 복합화시설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강현미

### ④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인구 양극화와 더불어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청년인구유출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 생존 전략으로 소멸 위험에 처한 도시와 마을은 교류인구나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하여 쇠퇴한 지역의 새로운 인구유입 및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근무여건), 교육, 돌봄, 교통, 주거, 생활인프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여러 요인 중 주거거점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복수 거점 생활자들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 확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복수 거점 생활자 관련 기초 조사 분석과 관계자 면담, 사례 분석을 통해 주거 공간 마련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점과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지역에 복수 거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설정에 대한 제언과 복수 주거거점 수요에 따른 주거거점 지원, 인프라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에 대한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박석환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13일(금) 서울 종로구 엔피오피아홀에서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 건축물 등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다수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사업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도심 소규모 필지 활용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가능성'으로, 토지주택부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소규모 필지 활용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정수현 앤스페이스 대표가 '서울사회주택 리츠 운영 사례의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커뮤니티 하우스 앤테이블의 사업구조와 공공형 리츠의 가능성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석환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휴공간 활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주제로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사업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유휴자원의 특성과 이를 위한 사업모델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의 진행으로 남철관 지역자산화 협동조합 이사장, 송정미 서울시청 상생주택팀장이 참여하여 민관협력형 임대주택 사업 등 주택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2023 녹색건축 미래포럼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및 현안 검토'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2023 녹색건축 미래포럼'이 10월 13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ESG와 녹색건축 연계방안 및 현안 검토'를 주제로,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분야의 미래정책을 발굴하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건설산업 ESG 분야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ESG 경영 정착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공공부문 ESG 분야에 대해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공부문 ESG 도입과 운영'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ESG 트렌드 분야는 김주윤 ERM KOREA 이사가 '부동산 및 건축산업에서 요구되는 ESG 트렌드'를 소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토론에는 박진철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 전원이 참석하여 ESG 경영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 2023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 AURI 경관포럼 '경관 더하기 공공' 공동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사)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 (사)한국경관학회는 10월 26일(목) 문화역서로 284 RTO에서 '2023 경관+공공디자인 집담회 / AURI 경관포럼'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관 더하기 공공'이라는 주제로, 류중석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공유를 통한 가치발견'을 마련하였으며,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환경을 위한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이태겸 한국 섬진흥원 진흥사업팀장이 '모두를 위한 섬 환경+안전 디자인'을, 유승종 라이브스케이프 대표가 '자연경험공간, 마음풀과 바이오필릭디자인'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안전을 위한 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나권희 엠플래닝 대표가 '도시안전과 단절없는 공간환경'을, 김상아 MIJO 대표가 '아파트 화재 안전디자인, 실증 기반 개발 사례'를 발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위한 경관과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 아래 최준희 도시디자인 진성 대표가 '이용자 배려 건축경관디자인'을, 문현배 SEDG 공공디자인연구소 전임연구원이 '간접흡연 예방 흡연부스 공공디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웅규 (사)한국경관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관 분야에는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신지훈 단국대 교수, 정해준 계명대 교수, 공공디자인 분야에는 강동선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신재령 팍스아이앤디 이사가 참여하여 도시공간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26일(목)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오민정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활용 실태'를 주제로, 임시주거시설의 지정현황과 활용실태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고려사항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조시는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임시주거시설 적정성 분석 사례'에서 강릉시와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통해 지역별 기본현황과 적정 임시주거시설 활용 시나리오 등을 검토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성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진 토론에서는 이재은 충북대 교수, 김미경 충북대 교수, 한우석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연구단장,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팀장, 윤동근 연세대 교수, 이종우 행정안전부 재난구호와 사무관이 참여하여 연구의 방향과 한계 등을 논의하였다.

## 2023 보행공정포럼 제2~4회 개최

auri



보행공정포럼 제2회 보도 울타리의 위험성과 모순



보행공정포럼 제3회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위험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와 한국도시설계학회 보행공간연구위원회는 매달 마지막주 화요일 연구원 중회의실 및 온라인을 통해 '2023 보행공정포럼'을 개최하였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 스쿨존 참사, 횡단보도 우회전, 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상적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행자와 공감하는 정책 포럼'이라는 기조 아래 보행 안전정책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 협력 기반을 확장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첫 번째 포럼 이후, 9월 26일(화)에 열린 '제2회 보도 울타리의 위험성과 모순', 10월 31일(화)에 열린 '제3회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의 위험', 11월 26일(화)에 열린 '제4회 로봇과 보행자의 법적 지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최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하는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토론회’가 11월 1일(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기존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기초발제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시작으로, 현태한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의 ‘국가기본도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사공호상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수홍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 박진근 아이나비시스템즈 이사, 유상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빅데이터연구단장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향후 이러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023 공공건축 포럼 ‘다시, 공공건축’ 개최

© 건축연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1월 7일(화)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1층 강당에서 ‘2023 공공건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다시, 공공건축’을 주제로, 리모델링, 자산을 활용한 공공건축의 성취와 과제 그리고 공공건축에 대한 시점 변화를 논의하고 미래 사회에서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용자 관점의 공공건축 조성’을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는 천장한 경희대 교수와 최정익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건설사업관리단장이 ‘서울공예박물관 공공건축 만들기’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김정은 월간 SPACE(공간) 편집장이 ‘공공건축 발주제로서 설계공모 10년의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소진 건축사사무소 리옹 소장이 ‘공원과 시민의 자부심’을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진행을 맡고,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상호 정림건축문화재단 실장,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공동대표가 참여하여 공공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11월 7일(화)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제7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먼저 Ann Plas 벨기에 겐트시 도시계획실장이 ‘The story of Gent - the shortcut to sustainable mobility’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Kuniyoshi Naoyuki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교수가 ‘일본 요코하마 보행환경 안전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세 번째로 장창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지속가능교통팀장이 ‘GGGI sustainable mobility approach for the members’를 소개하였다. 네 번째로 Kishimoto Siori 일본 하트비트플랜(설계업체) 매니저가 ‘칸사이 지역 보행환경 개선사례’에서 난바 광장 거리 활성화 사업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보행정책 성과와 과제’를 통해 국내 보행정책에 대한 쟁점을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에는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승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신치현 경기대학교 교수, 장일준 가천대학교 교수,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정책연구센터장, 홍성민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보행사업 개선사업과 이면도로 및 주차 보행정책, 보행사업 평가 지표 등을 논의하였다.

## 2023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포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조건’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0일(금) 부산시민공원 동백꽃방에서 ‘2023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제7회 부산도시재생생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산도시재생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조건’라는 주제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한계와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안나리 춘천사회혁신센터 운영실장이 ‘지역을 바꾸는 혁신실험의 거점공간, 커먼즈필드춘천’을, 양군모 세화마을협동조합 마을PD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세화마을: 질그랭이센터를 중심으로’를 통해 지역활성화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토론은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고윤정 영도문화도시 센터장과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말한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월 16일(목)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인식과 국내·외 노인주거지원 정책사례를 토대로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 주거지원 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베이비부머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인식과 주거지원 방향'을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이 '싱가포르의 노인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영광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주무관이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서비스'를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은 김도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대응과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 정소이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베이비부머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건축공간연구원 공동포럼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교육'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1월 16일(목) 서울 연남장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과 지역재생을 위한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 기획되었다.

먼저, 강현미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 자원망'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노준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부장이 '공간과 인력, 콘텐츠 측면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유우석 세종해밀초등학교 교장의 '공간으로 만든 해밀햇살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끝으로 김지연 예술로 링크 양평 총괄PM 문화기획자가 '학교-지역 문화자원 연계 문화예술교육'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와 함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여하여 '아동을 위한 지역자원 기반 공간복지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 AURI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건축환경과 건강'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7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AURI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환경과 건강(Built Environment and Health)'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 James F. Sallis UC 샌디에이고 공중보건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 및 지표를 개발하는 국제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도시와 건축환경, 나아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로 마련되었다.

먼저 James 교수는 국제환경보건단체(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and the Environment Network, IPEN)에서 수행한 연구활동을 소개하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력의 중요성과 건축환경의 의미를 짚어보고, 12개 국가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걷기 좋은 도시의 거주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었다는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지표로서 도시설계 요소와 보행성 지표를 설명하였다.

한편, 세미나 이후 세종시 보행환경 사례지역을 답사하며 보행자를 위한 대표적인 오픈스페이스를 살펴보고 건강도시 및 보행환경, 보행안전 관련 사례를 공유하였다.

## 2023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CPTED의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경찰청은 11월 29일(수)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설계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CPTED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 관련 사회적 역할과 인식 제고뿐 아니라 내실 있는 정책연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포럼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개회사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성과와 사업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요 연구성과로 임보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분석'과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CPTED 사업 솔루션의 효과적 설치를 위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성과에는 강신욱 대구달성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셉테드 사업성과'와 박재현 공주경찰서 CPO의 '충청남도 공주시 셉테드 사업성과'를 설명하였다.

종합토론은 이동희 한국셉테드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손원진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박신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조영진 건축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본부장이 참여하여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정책연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The 2<sup>nd</sup> International Forum 'Hue - Information Technology -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HueCIT는 12월 1일(금) 베트남 후에에서 'The 2nd International Forum'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22년부터 베트남 후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후속 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 혁신 산업의 육성 및 협력을 담당하는 후에 지방정부의 소관기관인 HueCIT(Hue Center of Information Technology)와 함께 국제포럼을 추진하였다.

이번 포럼은 녹색교통, 스마트도시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으로, 'Hue - Information Technology -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 아래 도시의 역사적 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성과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제발표,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영범 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적 접근 : 스마트도시+스마트빌딩'를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국립중앙박물관, 포스트미디어, G바이크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문화, 환경 및 교통 분야의 최신 동향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으며, 베트남 후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3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에서 바라보다'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3일(수)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3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에서 바라보다'를 주제로, 2024년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앞두고, 농촌재생과 지역활성화,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는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미래농촌'을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주제발표로 채성주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현황과 과제'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해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마쳤다.

자유토론에서는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백금철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차장,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오용준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4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발걸을 위한 행사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건축과 도시환경의 미래 구상을 담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주제로 에세이, 포스터, 동영상 등 3개 분야를 모집하였으며, 특히 스마트+빌딩 분야를 신설하여 일상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5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총 12점을 선정하여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8점을 수여하였다. 스마트+빌딩 부문 최우수상에는 도심항공교통(UAM)에 대비한 건축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 '우리 A 미래'가 선정되었으며, 일반 부문 최우수상에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한 '모두를 위한 건축, 이렇게!'가 선정되었다.



© 건축원

## 2023 공공건축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8일(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3 공공건축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에 관한 실무 및 교양 과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건축사 등 약 250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첫 번째 교육은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공공건축, '공(共)'을 넓히는 건축'을 주제로, 공공건축에서 발주처의 역할과 건축의 세 가지 요소 중 '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두 번째 교육에서는 권지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사무관의 '공공건축 정책 및 제도의 이해'를 통해 공공건축의 현황과 중요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교육은 양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이 '공공건축 기획업무의 이해'를 주제로, 건축기획의 정의부터 업무 단계별 주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을 공유하였다. 네 번째 교육에서는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도의 이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목적과 수행기관 등 세부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제도를 안내하였다. 마지막 교육은 김꽃송이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설계 공모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설계공모제도의 목적과 운영지침 주요 재개정 사항을 발표하였다.

##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MOU 체결

©한국기계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11월 14일(화)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평화빌딩 옥상온실에서 새로운 유형의 탄소중립형 건축물 및 도시의 지속적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2019년부터 한국기계연구원과 함께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21년 '다중 분산발전 기반의 옥상온실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정에너지 환경시스템 신기술의 물리적 및 공간단위 적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보 및 기술 자료 공유 ▲새로운 유형의 탄소중립형 건축물 및 도시의 지속적 개발·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사업 발굴 및 수행 ▲세미나, 컨퍼런스 등 국·내외 행사 공동 개최 등에서 업무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양 기관은 건물 일체형 옥상온실 인증을 통해 옥상온실 표준 설계와 건축기술개발, 관련 인증과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 수상식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17일(금) 부산 서면 경암홀에서 '2023 아시아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수상식'을 개최하였다.

아시아도시경관상은 아시아인에게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경관 관련 국제 시상제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은 2020년부터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 도시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심사를 진행하여 본상 후보작을 선정하였고, 5개 기관의 심사자들로 구성된 최종 심사에서 총 9개의 본상을 선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지자체 추진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방송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접수하였고, 도시경관부터 마을경관, 농·어촌 경관(건축, 도시재생) 등 사업유형도 다채로웠다. 국내 수상작은 '구천면로 견고싶은 거리조성사업(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홍대 레드로드 조성(서울특별시 마포구청)', MBC 빈집살래 in 어촌 - 빈집재생프로젝트(MBC)'가 각각 본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수상식에서는 9개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작품별 수상자의 발표와 참가국 간 국제교류행사가 진행되었다.

auri

## 2023 AURI 석·박사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1월 21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AURI 석·박사 연구지원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월 1~2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동 연구 수행, 논문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발표자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참가자	연구주제
김정민	도시 내 공공녹지공간 재생수단으로서 Green Benefit District에 관한 연구
구한민	추가 UAM 실증노선 및 버티포트 입지 건축물 선정: 2단계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박우진	자율주행차량 도입단계별 가로환경 내 보행자의 인식
구새안	경관자원조사와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의 비교연구
우소영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건축자산의 관리와 인식
오하늘	저층 주거지 내 유형별 생활가로외 범죄 특성 연구
홍현도	노후경사주거지 내 빈집을 활용한 거점시설 입지 분석

##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행사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19일(화) 네이버 1984 사옥에서 열린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행사에 스마트+빌딩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기관과 함께 MOU 체결 및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였다.

지난 2월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에 스마트기술을 더한 ‘스마트+빌딩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마친 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빌딩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기관과의 MOU 체결을 진행하였다. 이후 스타트업과 청년이 함께 하는 스마트+빌딩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빌리티 환승형(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재난응급형(위례 가천길병원 신축)’, ‘지역주도 버티포트형(경기 고양시,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 대한 공동연구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1일(목)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대규모 언어모델(Chat GPT)을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건축법령 질의응답 지원 시스템 ‘(가칭)아키로(ArchiLaw)’는 2023년 7월부터 수행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의 결과로 구축되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해석 사례의 약 18%가 「건축법」과 관련되며,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응답 민원은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질의응답 및 해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23년 발표된 GPT-4 모델을 활용하여 「건축법」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였다. 아키로는 사용자 질의와 법령내용의 임베딩 벡터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시멘틱 검색 기술(Max Marginal Relevance)을 활용하여 참조법령 조문정보를 생성한 후 GPT 모델을 거쳐 최종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행사는 건축법령 질의응답 시스템 아키로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키로의 개발 책임자인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개발과정을 발표하고, 시스템 시연을 선보였다. 이후 이강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임승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이광한 해안건축 소장,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시스템 활용 및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